

# 전국민 사랑받는 우리...트로트 가수여라~

진도 출신 '미스트롯 진' 송가인, 예능도 대세...호남예술제 최고상  
 '영원한 오빠' 남진 목포가 고향... '목포의 눈물' 고 이난영도  
 '아모르파티' 김연자·'...배터리' 홍진영·'작사랑' 주현미, 광주 고향  
 '아빠의 청춘' 오기택 해남 출신... '땡벌' 강진·하춘화는 영암

## 광주·전남 트로트 스타

대한민국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방영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은 온 국민을 사로잡았고 '트로신이 됐다', '나는 트로트 가수다' 등 트로트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겨나는 추세다. 중장년층은 물론 1020세대들 트로트를 보며 즐긴다. 이러한 트로트의 인기와 함께 광주·전남 트로트 스타들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미스트롯'에 출연해 우승한 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송가인(여·34)은 진도 출신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 교육 조교이자 무속인인 송순단씨가 어머니다. 송가인은 광주예고 3학년이던 2004년 제49회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국악판소리 고등부 최고상을 수상했다. '미스트롯'을 통해 '송가인이여라'를 유행시키며 스타로 떠올랐으며 현재 예능 프로그램, 광고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송가인의 집이 있는 진도면 지산면 영무리는 필수관광코스 자리잡았고 '진도 시티투어'에도 송가인의 고향 집과 주말 장터 코스가 포함되면서 인기를 입증했다.



송가인

목포 출신 남진(75)은 목포고등학교 졸업 무렵 레스토랑에서 팝송을 불러 밴드마스터에게 가수 제의를 받았다.



남진

하지만 배우의 꿈을 꾸던 그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이후 작곡가 한동훈의 권유로 가수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1965년 1집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로 데뷔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1966년 박춘석이 작곡한 '가슴아프게'가 히트하며 MBC 신인가수상을 수상한 그는 영화 '가수왕', '애정이 꽃피는 계절' 등에 출연하며 영화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잘생긴 외모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은 스타일은 소녀팬의 폭발적 지지를 불러오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마음이 고와야지', '님과 함께', '동지', '빈잔', '나야나' 등의 곡이 꾸준히 히트하며 '트로트의 황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 '아모르파티'로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폭발적인 반응과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김연자(여·61)는 광주 출신으로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일본에서 데뷔했고 2001년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평양에서 공연을 했다. 현재 '아모르파티', '타이틀' 등 EDM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장르를 선보이며 활동 중이다.



김연자

약사출신으로 알려진 주현미(여·60)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81년 제 2회 MBC 강변가요제에 음악그룹 '인삼 뿌리 27기'의 멤버로 출전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후 1985년 1집 앨범 '비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했고 '신사동 그 사람', '작사랑' 등을 히트시키며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렸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홍진영(여·35)도 광주 출신이다. 조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그는 2006년 드라마 '연개소문'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9년 '사랑의 배터리'라는 트로트 앨범을 발매하면서 가수활동을 시작했다. '사랑의 배터리', '내 사랑', '산다는 건', '엄지 척' 등의 히트곡이 있다.

하춘화와 강진은 영암 출신이다. 하춘화(여·64)는 6살때 독집앨범을 내면서 데뷔했다. '잘했군 잘했어', '날 버린 남자', '우리 사랑 가슴으로', '연인의 부르스' 등의 히트곡이 있으며 1991년에는 개인 최다 공연기록인 1260회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강진(65)은 1975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 음악 가수로 데뷔한 후 1986년 '이별의 신호등'이라는 곡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1994년 발표한 '남자는 영웅'과 '삼각관계'가 인기를 끌면서 무명생활을 청산하고 이름을 알렸다. 히트곡으로 '땡벌', '화장을 지우는 여자', '남자는 영웅', '연하의 남자' 등이 있다. 그의 아내는 인순이와 함께 희자매로 활동했던 김효선씨다.

'아빠의 청춘'으로 유명한 가수 오기택(81)은 해남군 북



오기택



송가인



이난영

평면(현 북일면) 출신이다. 해남중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 성동기계공고를 마치고 1961년 KBS 주최 직장인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것이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 타고난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1963년 '영동포의 밤'으로 데뷔했다. 이어 아지도 중장년이 노래방에서 애창하는 '고향무정', '마도로스 박', '아빠의 청춘'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 사람 찾으러 간다'의 류기진(64)은 고향 출신으로 2006년 52세의 나이에 데뷔했다. 어린시절 동네에서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했던 그는 부모님의 반대로 가수의 꿈을 접었다. 이후 꿈을 잃지 않고 난방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던 중 데뷔해 화제가 됐다. 대표곡으로 '그랬다', '그사람 찾으러 간다', '원하지 않는 이별', '남자가 사는 이유' 등이 있다. 2012년 제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가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전설적인 가수 이난영(1916-1965)은 목포시 양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6세이던 1932년 '태양극장'에 입단해 공연을 선보였으며 1933년 오케레코드와 전속가수 계약을 맺고 1935년 '목포의 눈물'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음악영화 '노래 조선'에 출연했고 '봄의 환희' 발매를 계기로 일본에도 진출했다.

그는 21세 때 작곡가 김해송과 결혼했다. 평양 송실 전문출신인 김해송은 코믹한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야', '모던 기생 점교', 재즈 '다방의 푸른 꿈' 등 다양한 장르의 곡 작곡과 편곡을 했던 음악인이다. 이 씨의 자녀들은 '김시스터즈', '김 보이즈' 등을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가보니



영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1층 전시관 모습.

## 대중음악 대표주자 '트로트' 역사·교육·공연장 한자리에

'잘했군 잘했어', '날 버린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트로트 가수 하춘화(64)의 고향, 영암에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가 있다.

지난해 개관한 트로트 센터는 2012년 그녀의 아버지 하중오씨가 60년 가까이 모은 한국 전통 가요 연구 자료를 영암군에 기증해 마련된 공간이다.

영암 기린랜드 입구에 자리한 센터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1층에는 한국 트로트 가요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한국 트로트의 태동기인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별 트로트 특징을 분석한 전시가 중심이다.

### 가수 '하춘화의 고향' 영암에

### 아버지 하중오씨 60년 자료 기증



하중오

1877년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축음기부터 나팔이 달린 턴테이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등 당시 널리 쓰였던 장치도 전시돼 있다. 시대를 '히트곡'이 담긴 LP판과 CD도 추억을 불러 일으킨다.

다양한 체험존도 눈길을 끈다. 전시관 곳곳에 마련된 헤드셋에서는 각 시대의 대표곡이 흘러나온다.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곡을 골라 들을 수 있으며, 악보를 출력해 가져갈 수도 있다.

복고풍 거리처럼 꾸며진 전시관 한 켠에는 노래방 시설도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는 노래 부르는 자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또 '영암극장' 간판이 내걸린 방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풀어내는 다큐멘터리를 만나볼 수 있으며, 마네킹 DJ와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다방'에서는 카메라 셔터가 절로 눌러진다.

2층은 하춘화 단독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6세 때부터 앨범을 발표하며 시작된 하씨의 음악 인생을 오롯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곳에 들어서면 하씨가 세종문화회예술관에서 열었던 데뷔 40주년 무대에서 입은 드레스와 구두 등 다양한 무대상이 관람객을 반긴다. 1974년 10대 인기가수 청백전에서 수상한 상패, 대통령 표창장 등도 한 데 모여 있다. 아버지 하중오씨 흉상과 함께 하씨의 가족 사진, 신문 스크랩 등도 전시돼 있다. 그밖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도 마련돼 있다.

하춘화씨는 "아버지는 '먼 훗날 대중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연구 자료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자료를 모으셨다. 영암 트로트 가요센터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뤄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영암·글·사진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